

## 오늘의 말씀묵상

본문 : 로마서 4:1-8(현대인의 성경)

### 1. 말씀

- 1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 2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사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 3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 4 일해서 받는 삶은 정당한 대가이지 선물로 거저 받는 것이 아닙니다.
- 5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 6 이처럼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7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 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 8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다.

### 2. 관찰

- 본문에서 눈에 띠는 단어나 구절은 어떤 것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본문에서 어떤 분으로 나타나십니까?

→ \_\_\_\_\_

### 3. 메시지

-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소개하고 있나요?  
(2,3절)

→ \_\_\_\_\_

- 바울은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나요?(5절)

→ \_\_\_\_\_

- 다윗은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것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6-8절)  
→ \_\_\_\_\_
- 바울은 "하나님은 경건치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신다"고 말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 \_\_\_\_\_
-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인정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있나요?  
→ \_\_\_\_\_
- 다윗은 "잘못을 용서받고 죄가 덮어진 자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공로 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7-8절)을 나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나요? 지금 내 마음 속에 여전히 죄책감 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 \_\_\_\_\_

#### 4. 적용

-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는 무엇입니까?  
→ \_\_\_\_\_
- 하나님은 '의로운 자를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의 핵심은 인간의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으로 얻는 의"는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삶의 실제입니다. 일상 속에서 이 복음을 더 깊이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의 걸음은 무엇일까요?  
→ \_\_\_\_\_

#### 5. 묵상 나눔(아래 묵상 나눔은 함께하는교회 교인 한 분이 개인적으로 적은 묵상 글입니다. 함께 읽으면서 묵상을 처음 시작하려는 분들이나, 현재 묵상을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지 참고하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롬 4:1-8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

바울은 '이신득의'가 신약 시대의 새로운 복음 진리이지만, 이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를 예시해 주셨다고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은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지 않았고, 다윗 또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사함의 은총'으로만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 노력하지만 우리의 행복지수는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처럼 살면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라 말하고 있지만, 행복의 근원은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았기에 하나님은 그처럼 살아서 행복하라고 했을까요? 그는 믿음으로 행복을 얻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복을 얻었다는 것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래도 우리의 선조들처럼 위기를 겪고 흔들렸습니다. 그들은 용감하게 적들을 물리쳤지만 적이 강할 때는 우리들처럼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불릴 자격이 있어 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 6. 기도